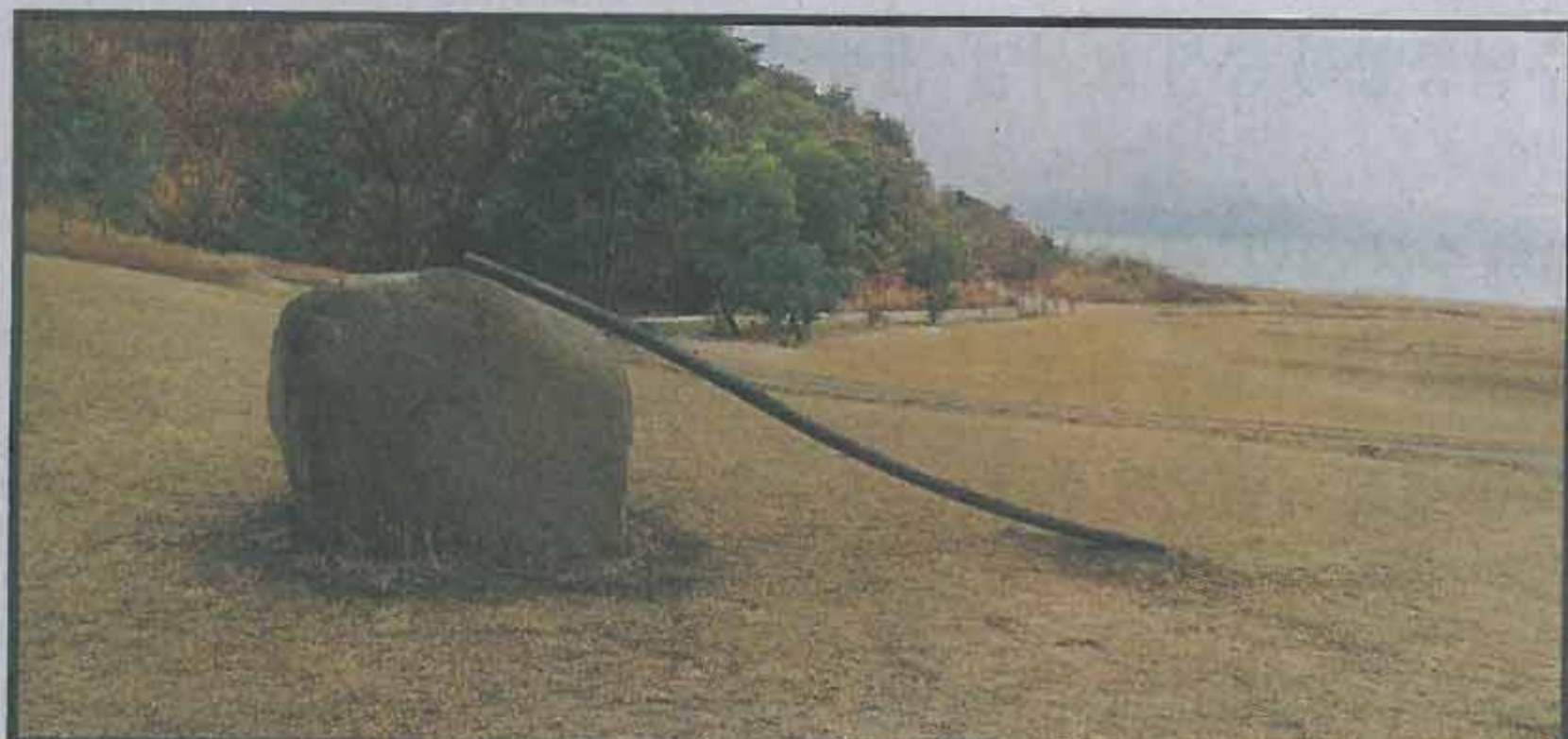


내년 6월 한국인 최초 佛 베르사유궁서 개인전 여는 이우환 화백 인터뷰



이우환 작가 딸 이미나씨 제공

일본 가가와현 나 오시마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에 설치된 2013년 작품. '관계항-휴식 또는 거인의 지팡이'.

“세속적 평가가 높아져 반성중 예술은 날 일상에서 일깨워줘”

그의 이름 앞에는 이미 수식어가 차고 넘친다. 생존 작가 중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 일본 '모노하' (物派)의 선구자, 한국 작품 해외 경매가 중 최고를 기록한 작가... 'LeeUfan'이란 이름으로 해외에 더 잘 알려진 작가 이우환(77)은 지난 10월 금관문화훈장을 받으면서 이름 앞에 수식어를 또 하나 추가했다. '살아 있는 이는 받기 힘들다'는 세간의 농담에 걸맞게 2007년 이후 생존자가 이 훈장을 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언론 노출을 극히 꺼리는 그를 28일 인터뷰했다. 훈장 수여식에 불참했던 그는 뒤늦은 수훈 소감을 묻자 “세속적인 평가가 높아지는구나 하고 반성합니다”라는 선문답을 했다. 그는 내년 6월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베르사유궁서에서의 개인전 개최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회화와 설치미술뿐 아니라 에세이와 시집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그는 이론가, 철학가로서의 면모도 갖고 있다. 그의 딸 이미나씨를 통해 주고받은 팩스에는 짙은 글 안에 깊은 구도(求道)의 흔적이 역력했다. 1년 중 일본과 프랑스, 미국을 오가며 작업을 하는 그는 가족에게도 행방을 알리지 않고 주로 팩스로 연락을 취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파리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하던데, 근황은 어떠십니까.
- 내 나이에 알맞은 고장이 있어서 적당히 편치 않은 느낌이 좋습니다.
▶ 머무는 나라마다 다른 작업을 하십니까.
- 미국에서는 회화 작업을 하지 않고 유럽과 일본에서만 회화작업을 합니다. 다 합쳐도 큰 작품은 1년에 10점 미만입니다. 조각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어디서나 합니다.
▶ 최근 붙잡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까.
- 필요 없는 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술인가.
▶ '2001년 9월 11일, 뉴욕 테러가 벌어진 다음 더더욱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에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 어떻게 시가 쓰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 나의 무력함을 반성합니다. 그러나 예술 활동을 지진은 모를 것입니다.
▶ 요즘을 '인간이 퇴장한 오늘날'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예술은 나를 일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기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을 예술 한답시고 뛰었지만 이뤄진 건 없는데 그래도 예술! 하고 생각하면 늘 설렙니다.
▶ 선생님에게는 '경계인' '중간자'의 인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인'으로서의 생활은 선생

님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인간 중심적 근대주의를 기반으로 한 서구미술의 논리를 강한 톤으로 비판해 왔지만 한편으론 선생님의 작품이 동아시아의 신비주의적 영역으로 규정되는 것 역시 부정해 오셨습니다.

- 살다 보니 경계인이 된 것 같고 미래는 다 경계인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우환은 서울대 미대 중퇴 후 1956년 독일, 니혼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70년대 전후 태동한 일본의 모노하 운동을 주도했다. 모노하는 물질을 그대로 드러내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재고하는 작업으로, 서구의 논리에서 벗어나 일본 문화의 특질에 바탕을 둔 추상조형을 추구하는 사조를 특징으로 한다.) 나의 작품은 이우환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 되기 힘듭니다. 나의 꿈은 여기가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암시하는 데 있습니다.

▶ 회화 작품의 경우 1970년대 점, 선 시리즈로 시작해 1980년대 바람 시리즈, 1990년대 부터 현재까지 조음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의 변화는 선생님 내면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습니까.

- 모든 것은 과정이고 또 결과물이지 답이 아닙니다.

▶ 화백, 아티스트, 작가, 철학자 등의 여러 호칭 중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좋습니까.
- 나는 단순한 미술가입니다.

▶ 한국의 젊은 화가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 제발 책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고 외국 여행 많이 하기 바랍니다.

▶ 2015년 부산에 '이우환 갤러리', 2016년 대구에 '이우환과 그친구들 미술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부산과 대구 간 신경전도 상당했는데 일본 가가와현 나오시마에 있는 미술관에 이어 한국에서 선생님의 미술관이 잇따라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나는 아직 한국의 개인 미술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구는 나와 친구들의 미술관, 부산은 시립 미술관 내에 부설로 방 몇 개의 갤러리가 만들어질 뿐입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10월 금관문화훈장 수훈 영예
日·佛·美 오가며 회화 등 작업
행방 알리지 않고 팩스로 연락
'예술!' 하고 생각하면 늘 설레
난 그저 단순한 미술가일 뿐...

살다보니 특정한 아닌 경계인
특정 지역을 대표하기 힘들어
젊은 화가들이 책 좀 읽었으면

